

우리 모두 ~~인민의~~ ~~살려~~ ~~가~~로 자라나
오월정신을 가슴에 품고
반미투쟁의 봉화를 지피자!!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자주의 세상, 새 세상, 통일의 세상이 찾아왔을 때
그대들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대를 바라보며
그대의 2000년 5월을 물으면
그대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1. 13기 남여대협 의장의 마음글

5월의 시작점에서 지난 3,4월을 다시금 깊게 되짚으며 더 큰 결심과 자신감으로 자주민주 통일 여성해방으로 가는 즐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3,4월 우린 결의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범국민반미항전!! 때론 지치고 힘들어 울기도 하고 우리들 하는 자주적여학생운동을 주저하기도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만큼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여대협이 주도적으로 전여대협 총회를 준비하며 학생회 일꾼부터 새내기까지 만나 전여대협 투쟁의 과제를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결의를 세웠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여학생운동의 중심에 서계신 전여대협 의장님의 뜨거운 눈물과 힘있는 결의, 미국과 김대중에 대한 분노를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다 그치며 강단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뿐입니다. 그 눈물, 그 다짐으로 80년 5월 광주애국시민을 학살했던 주범 미국놈을 몰아내는 투쟁, 나몰라라 죽대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면서 4천만 민중을 우롱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김대중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학우대중을 만나며 여학생 운동을 대중화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2000년여학생 운동이 달려 있습니다. 여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바로 희망이요 힘이 라는 것을, 발전과 강화의 밑거름이란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투쟁!!

2. 3,4월 평가

◆3,4월의 모범

조선대학교 경상대 여학생회 선전편집부를 한해 핵심적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모임에 있어서 모범을 창출한 단위입니다

*조선대학교 경상대 여학생회에서는 소모임구성고민으로 선전편집부를 방중부터 대중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강과 함께 강의실 선전, 대중적 선전 그리고 적극적인 새내기 만남으로 7명의 선전편집부 새내기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구성후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공해주면서 소속감을 높여주고 야유회나 정기적모임으로 단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투쟁이나 총궐기 그리고 출범식까지 함께 하면서 실천적 담보를 가져 오면서 큰 모범을 창출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총여학생회**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전체가 함께 하는 대중사업의 모범을 창출하였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대중적으로 계획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대의체계를 통해 함께할 것을 정치사업하였고 직접 학우만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전체 일꾼들과 세계 여성의 날의 내용에 맞는 아침선전, 점심선전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여성영화상영을 대중적으로 함으로써 학우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여학생회 간부들이 대중사업의 정형을 만들어감으로써 커다란 자신감을 얻게 되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농대 여학생회**

여학생회의 초석인 과여부장들과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농대 여학생회는 과여학생부장들과의 운영위가 지금 9차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전개해오는 모범이 있습니다. 방중에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한두번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여학생부장들을 믿고 만나내면서 전국의 모범으로 총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운영위가 친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과 투쟁의 내용을 담으면서 여학생부장들의 역할 또한 찾아주는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3,4월 그 어느 누구 보다도 자기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면서 살아왔던 모범 일꾼입니다. 전여대협 총회를 준비하면서 대중사업의 정형을 창출해보겠다는 의의와 목표를 가지고 개인활동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 일꾼들을 만나는 것은 기본, 선거때부터 그리고 새로배움터, 출범식때 함께 했던 새내기들, 한번 얼굴이라도 마주치고 인사했던 새내기들을 직접 조직하는 열의, 열정으로 간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과지점

소모임 사업, 과여부장 사업, 대중사업의 정형 등 핵심사업에 있어 각 단위에서 모범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 단위에 대한 애정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열의, 열정을 기본으로 학우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월 모범으로 선정된 단위의 활동상을 전파하면서 따라배우는 모습을 가져 이후 남여대협의 전체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조직적 과제 평가

- 소모임의 기틀을 잡혀있으나 내용적 담보가 많이 어려움 지점
- 이동총여를 내용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꾸준히 가져나가지 못한 부분, 총여만의 사업으로만 국한되어 버리는 지점. 그래서 단대여학생회의 적극성이 발향되지 못하는 지점.
- 조직생활의 편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점
- 일꾼들의 자기 준비정도가 부족한 지점

◆대중적 과제

-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일꾼들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심들을 얻어가는 과정
- 투쟁과 사업에 있어 상승곡선을 그려가지 못하고 사안사안별로만 집행되는 한계
- 아주 톱크고 대중성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여학일꾼들만 조직되는 한계

◆전반적 성과, 교훈

- 어려운 조직적 상황에서도 남녀대협 대의원대회와 전여대협 총회를 일꾼들의 결의로 대중적으로 성사시켜 나간 점은 아주 성과적이다.
- 일꾼들의 준비정도를 다그쳐 나가자.
- 대중을 투쟁의 주인주체로 나서게 하자
- 새내기들을 더욱 이악스럽게 조직화 해나가자.

3. 정세

*일반정세

1) IMF 경제신탁통치 이후 민생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로 인해 한국경제의 예측과 파탄은 심화되고 민생은 더욱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한국경제를 재생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기업구조가 대외 팽창적인데 있다'면서 기업구조부터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대로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기업체들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비율 8%에 미치지 못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업은 무려 5만 7천여 개가 파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구조조정 지원을 미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노동자들을 마구 해직시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한 고금리 정책과 긴축정책 또한 대량 실업을 낳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신탁통치를 자행하면서 당국의 고금리 정책과 긴축정책을 강요했으며, 긴축정책으로 인해 기업주들에 대한 자금압박이 자행되면서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체들에게 국제구제금융의 요구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정책과 고금리 정책은 기업체들에게 자금난의 압박을 가중시켜 파산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 땅에서는 실업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무려 8백여 만 명의 실업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란 맨 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실직은 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습니다. 실직 당한 가족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밥줄이 끊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나선 가장들은 빈손으로 처자앞에 나설 수 없어 방황하다가 터미널과 역·거리에서 잠들기 일수고, 실직으로 가정이 파탄돼 도움을 받을 사람도 멀어지고 끼니때도 밥 한끼 먹을 곳이 없습니다. 실업대란은 자살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가족 동반자살, 동료 집단자살 등 각종의 자살사건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자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로 기업이 무더기로 파산되면서 경제는 더욱더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도 산다느니, 경제를 회생시키자면 고통을 눈감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먼저 저임금 정책을 단행하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가 진행된 원인이 고임금 저효율의 정책에 있다면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제 20~30%, 심지어 절반이나 깎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로 못 미치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고물가, 고세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와 민생압살정책을 단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제파국은 김대중 정권의 집권위기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그 출로를 정리해고에서 찾았고, 민생압살 정책으로 매달렸습니다. 경제파국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세금은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을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해 가로막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용접시다일을 하는데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여 하루 일당 17000원을 받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로서 월차휴가라든가, 휴가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여성노동자의 삶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각종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이 땅의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중의 자주적 진출과 미제·사대매국 세력의 대결구도

민중의 자주적 진출과 이를 가로막는 미제와 김대중 정권과의 대결구도는 첨예화되면서 반미자주전선이 더욱 뚜렷해져 가고 있습니다.

3.4월을 거치면서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와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미자주화 투쟁의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미군 양민학살 만행에 대한 전민족적인 공분이 결집되면서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곳곳에서 주한미군 기지 항의방문, 미대사관 항의방문,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 주한미군 범죄관련한 공동 투쟁, 학살지역에 대한 반미순례단의 조직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민중적인 반미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이 노동자 투쟁 정세의 기본 축으로 발전하면서 반미투쟁이 민중의 생존권적인 문제와 맞물리는 주요한 사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 양상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신반미경향을 대변하는 일부이며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함양할 정도로 잠재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5.6월 투쟁에서의 기본 정세가 남북최고위급 회담(이하 남북 최고위급 회담으로 기술함)의 급진전에 따른 반미투쟁과 통일투쟁의 확대된 국면이 조성되며,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근본적으로 반미반김투쟁의 지향성을 가지고 확대되고, 청년학생이 압도적 역량을 동원하는 반미자주화 투쟁이 전민중적인 공감과 실천적 의지를모으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 거세지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의 폭과 깊이가 커져 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3·4월을 거치고 5·6월로 나아가면서미국에 반대하는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에 미국과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의 지배구도는 점점 파탄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7천만 민족과 우리 민중 앞에 자주민주통일 투쟁에서의 공세적 국면이 더욱 크게 확장되고 미국과 김대중정권에게는 수세적 국면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

가장 선차적인 것은 곧 반미자주에 있습니다.

"반미 없는 민주 없고, 반미 없는 통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모순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곧, 자주민주통일 투쟁에서 반미자주의 문제는 중핵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미자주화 투쟁전선의 폭과 깊이가 확대 되어가는 경향성은 곧 민족과 민중의 (자주적) 진출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의 공세적 국면이 더욱 크게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민통 투쟁 정세가 저절로 열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주민주통일로 향해가는 민중의 투쟁이 거세게 분출하는 정세를 주동에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남북최고위급 회담과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앞둔 정세는 그야말로 민중의 자주적 진출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위기국면은 받을 빨래야 빨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게 있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거센 파고가 자신의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 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동시에 이남 사회에서 일어나고있는 양민학살 만행을 중심으로 한 반미감정이 폭발적인 형태로 발전되면서 미국은더욱 수세적인 국면으로 빠져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김대중정권 역시 집권위기를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오히려 자신의 반통일성과 사대매국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투쟁을 위시한 전민중적인 투쟁과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위기국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①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대결구도

남북 최고위급 회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까지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미제와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의 지배구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4년 조미 제네바 협정, 99년 조미 베를린 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북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대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서 미국은 이북에 대하여 테러국가 지정해제, 경제적 보상, 북미수교, 한반도 중요 현안 문제(주미철과 북미평협문제)의 논의로 나아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조미간의 회담이 교착상태로 빠지고 미국의 이북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시 꿈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시 더 이상 이북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최후의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책임있는 당사자임을 회피할 수 있는길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간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상황이지만, 이북의 자주적 외교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가운데(다른 나라들과의 수교음직임이 급증) 미국은 이러한 이북의 자주적 외교 앞에 반드시 남북간의 대화를전제조건으로(이북과 수교를 원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남북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음)달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이 미국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북에서 내걸고 있는 대화에 선행한 3대 요구조건(외세와의 공조중단, 국가보안법철폐, 통일애국인사 탄압 중단)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북이 남북대화에 선뜻나서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 미국은 자신의 대리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집권 위기(총선을 앞두고)를 무마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문제로 돌리려는 이중목적에서 남북최고위급 회담개최

를 요구하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북의 자주적공세는 가히 놀랄만한 사변이 되었습니다. 이북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재빨리 받아들이면서 가까운 시일 내로 확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적잖이 당황한 미국은 남북 최고위급을 지지한다고 했다가도 잘 모르겠다고 발뺌도 하고, 아직까지 쟁점의 문제로 떠오르지도 않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발언을 쏟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가진 정세적 파급력의 놀라움에 미국 스스로 제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남북 최고위급 회담의 정세파급력을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7천만 민족의 통일열기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민족대단결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각계각층의 통일애국역량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통일의 길로 나서는 양상으로 발전하며, 이북이 내걸고 있는 대화의 3대 전제조건 중에서 일정한 정도의 해결(외세와의 공조차단은 김대중정권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에 불가능에 가깝고,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전면적 탄압은 자신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깨뜨리는 정치적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김대중정권은 벌써부터 콧방귀도 끼지 않던 장기구급 통일애국인사(비전향 장기수)의 이북 송환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최고위급 회담의 정세파급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로 이것이 얼마나 조국 통일에 있어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최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김대중정권에서 제기되는 것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협을 비롯한 이산가족문제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경우와 둘째는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과 같은 형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가 제기되고 타결되었을 경우를 예측해봅시다.

먼저, 남북경협이 전면적인 것으로 확대되면 이남의 인력과 막대한 자본이 이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남북간의 전면적인 교류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이남의 가족들이 대부분 이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북에 대한 전쟁책동은 심히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북에 대한 전쟁발발 움직임이 감지되면 곧바로 이남민중으로부터의 전쟁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큼니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곧 경제적 강국으로의 부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을 돌아봅시다.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은 곧 주한미군의 이남 주둔 근거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과정을 알기에 남북최고위급 회담 발표가 나자마자 주한미군 영구주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북간의 불가침에 이어조미간의 평화협정은 수순밟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과 김대중정권에게는 불만족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로의 걸음을 한발 더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의제가 이 두 가지에 국한된다고 해도 이 정도의 통일의 행보를 빨리 당길 수 있는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 해결 또는 그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형상과 같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이제 몇 년 앞의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 가속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더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통일조국에 대한 신심을 안고 달려갑시다

②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대결구도

향후 5·6월 노동자투쟁은 대단히 높은 정세적 과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5월 1일 메이 데이 투쟁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의 열기는 5월 11일 금속연맹의 총파업(핵심사업장인 자동차 4사의 파업투쟁)과 5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면해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은 형식적으로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집권 2년간의 노동자 탄압에 맞선 노동대중의 폭발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로 대단히 높은 정세과급력을 지닌 것으로 됩니다.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몇 가지의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반미투쟁으로의 지향이 확고해 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노동자 투쟁의 핵심내용이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에서 촉발하는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IMF 경제신탁통치 반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곧바로 반미투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지역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당면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반미투쟁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미투쟁이 양민학살 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문제로 확대되어 갑 경우 반미투쟁의 폭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세흐름에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문제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곧 미국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만들어가는 시발로 될 것입니다.

둘째, 반김 투쟁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층 노동자속에서 '김대중 퇴진'과 '김대중 타도'의 구호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집권 2년만에 걸친 노동자 탄압(무차별적인 정리해고, 실업사태, 구조조정등으로 인한)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터질 수밖에 없는 울분을 심어 놓았고, 마치 그양상이 뇌관을 안착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형상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나타난 김대중정권의 반노동자성(민주노총을 비롯한 핵심 6대 요구안에 대한 정권의 무반응, 자동차 해외매각 입장에 대한 정권의 태도 등)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금의 노동자 투쟁은 97년 '정리해고 반대, 노동악법 철폐'의 구호를 들고싸웠던 투쟁정세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진보적 지식인들, 수많은 애국민주세력들이 동참한 투쟁으로 민중들은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까지 벌어질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이기에 그 정세과급력은 실로 높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은 당면한 정세에서 이러한 노동자 투쟁이 가진 정세적 의의를 정확히 숙지하면서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쏟아내어야 할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자주민주통일 투쟁이 급격한 정세적 흐름을 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월 시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정세적 측면으로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철거투쟁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일단, 5·6월로 들어서게 되면 전민족적 차원에서 전민특위가 결성되고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며 청년학생들은 압도적 투쟁역량의 힘에 바탕하여 곧바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급부상시키면서 반미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제끼게 될것입니다. 특히, 5·18을 앞두고 광주학살의 진짜주범인 미국놈들에 대한 응징투쟁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반미투쟁은 곧 민중의 반미의식화 측면에서 식민지 모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될 것이며, 반미투쟁 대오는 비약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높은 반미감정이 초보적이고 낮은 단계의 수준일지라도 실천적 성격의 투쟁으로 변화시키는 시기로 될 것입니다.

남북 최고위급 회담, 노동자투쟁, 미군 양민학살 만행에 대한 전민족적 투쟁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세는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가는 폭발적인축매로 될 것이며 민족민주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3) 미제와 사대매국 정권 김대중 정권의 지배구도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지배위기가 더욱 우심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 지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몇 차례에 걸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국내에서도 신경제 ^{new economy} 이른

-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세계 일체화, 정보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세계 일체화, 정보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명이 가져온 생산성의 확대 - 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은물론이고 자국내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실제로 클린턴 정부는 대내, 대외적 문제에서 정확한 자기입장을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 결정적인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WTO협상에 대한 NGO의 투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논의에 대한(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세계화 책동에 대한 저지투쟁) 유엔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 쿠바에 모여들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미국식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회합)들의 회의 등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 있는 제 3세계 자주역량, 반제자주역량세력의 결집에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듯이,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쿠바로 가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야기하는 등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미국의 경제적 위기는 곧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진다)와 정치적 혼란, 반제 자주역량의 결집에 따른 위카함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더욱 사면초가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①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구도에 대하여

이러한 미국의 위기국면은 곧 한반도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즉, 경제적 위기를 전가하고 자신의 미국식 세계화 책동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민족자주역량(반미자주역량)의 결집 속도가 급류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저지하고 막아나서기 위한 책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짧게나마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첫째, 총체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간섭을 위한 책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의 극명한 예가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위급 회담의 성사에 대해 일정정도 지지를 표명하면서도(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자신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된다) 동시에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4월 15일부터 진행 중)을 계속 진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남 사회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만행에 대한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통하여 높아지고 있는 민중의 반미감정을 무마하려 들면서 동시에 김대중정권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북에 대한 간섭과 고립화책동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북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제자주역량의 중심역량으로 급부상하고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자주적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심히 중대한 위기상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역시나 이북에 대하여 일정하게 대화를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조미간 회담이 진척되고 있지 못하며 경제제재 해제와 테러국가 해제 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북에 대하여

노골적인 간섭과 고립화책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상이 바로 미사일문제(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와 북핵 감시 강화법을 통과하는등 상하의원에서 동시에 제동을 걸고드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남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침략정책은 더욱 가속화시키면서(김대중정권에게 기간산업을 비롯한 중요핵심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것,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신탁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 WTO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압력을 행사하는 것등)도 이남 민중의 반미감정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책임을 회피하고, 김대중정권을 통하여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을 차단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② 김대중정권의 집권안정화 구도에 대하여

총선 이후 김대중정권이 처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에 민감한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늘어만 가는 실업대열에서 비롯되는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 요구에 직면한 상태, 사상 최악의 금권선거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기 등으로 하여 김대중정권은 민중들로부터 더욱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김대중정권이 이와 같은 민중들의 투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책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김대중정권은 자신의 집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상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개량화 책동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김대중정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책동의 형태로는 남북최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기만(통일을 앞두고 사회혼란을 조성한다는 명분아래), 이북사회와의 절대적 비교를 통한 민중 기만(이북에 대한 반북모략질 - 이북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조국의 상에 대한 기만적 호도로 집중될 것이다), 통일투쟁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면서 기만적인 창구단일화 논리와 남북인간 더 잇기와 같은 기만적인 통일운동 논리의 유포, 정치적 경제적 책임의 전가(투쟁하는 노동자와 야당에게로), 386 개혁세력(?)의 이름아래 진행되는 기만적인 개혁소동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집권위기를 희석화하기 위한 책동을 자행할 것입니다.

둘째, 투쟁으로 애국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책동이 더욱 간교한 방식으로 치달아 갈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최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형태의 물리적 탄압을 가해오기에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집권 안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그 탄압방식에 있어 더욱 간교한 술책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주동자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 운동세력에 대한 분열이간책동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계 개편은 자신의 안정적 집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급격한 변동을 형성하기에는 대단히 큰 무리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성계정세

●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삶이 여실히 드러나는 여성신문 기사를 실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위협수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최근 여성고용 전문상담 창구인 중앙과 각 8개 지역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2000년 1/4분기 상담사례를 분석, 여성고용 동향을 정리·발표하였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총 상담건수 3백68건(재상담 제외)에서 ▲ 임금체불 1백43건(43.1%) ▲ 정리·부당해고, 부당행위 등 고용불안 84건(25.3%) ▲ 차별 35건(10.6%) ▲ 직장내 성희롱 29건(8.8%) ▲ 직장내 폭언, 폭행 17건(5.1%) ▲ 모성보호, 직업병 24건(7.2%)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분석결과 작년 4/4분기 상담 분석 결과인 임금체불 91건, 정리·부당해고 부당행위 34건과 비교해 고용불안 상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고용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와 부당 인사가 많은 현장에서 집계돼, 고용안정과 더불어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를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 폭행 건은 작년 4/4분기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로, 성희롱 상담사례 29건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은 2개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여노협은 특히 전치 2-3주 미만의 폭행행위의 경우 가해자가 입건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해고 등의 불이익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장내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여성신문 기사

● **여성농민** (전반적인 여성농민의 상황을 적습니다.)

농업부문에 구조변화로 여성농민 인력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부문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3.8%에서 98년 현재 4.3%로 급증하였고 2000년 이후 쌀생산의 지속적 감소와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농업부문 성장률은 연평균 -0.4%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 생산부분의 비중감소는 경지면적,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업취업자수의 감소와 함께 생산부분의 구조변화도 동반하게 된다. 즉 1990-1995년에 경지면적은 연평균-1.15%씩 감소하고 농가호수는 -2.79%씩 감소하고 있지만 3ha이상의 대규모 경영농가수는 연평균 12.5%씩 5ha이상의 경영농가수는 27.8%씩 증가하고 있어 농업 경영이 규모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대규모화는 식량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 경제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작부체계의 급속한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구도 98년 현재 4,399천명으로 90년 대비 -69.5%감소하였는데 그 중 여성인구가 51.6%이고 남성의 경우 겸업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업주종사자)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빈곤- 환경악화- 식량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이러한 국내농업 생산부문의 구조변화와 인구변화는 근본적으로 식량자급 실현과 환경보존 등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면서 평균 경작규모가 1.3ha정도인 대다수 가족농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젊은 농업생산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업이 기간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을 통한 소득보장실현, 그리고 노동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한 (농업인력 육가)이 농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생산에서 절반이상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중요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영농보조자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99년 2월에 통과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전문인력양성이 강조되었고 여성농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내지 못함으로써 여성은 여전히 영농의보조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농업주종사인력의 여성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민은 농업경영상의 역할이나 인적자본 수준에서 중심인력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1979년 유엔차원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여성농민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신용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 사회활동 등 각종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 시키도록 권고하였다. 그 이후에도 북경 행동강령, 세계농업기구 행동계획 등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성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농민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가족농이 농업의 근간이 되는 많은 나라들은 여성농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농업과 농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책과 제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농민 인력육성정책을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여성농민정책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여성민중을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함께 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야 할

4. 시기규정

1) 반미반일의식화와 조직화에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는 시기이다.

-3,4월 우리는 총선과 대중사업속에서 반김투쟁 중심에서 힘차게 투쟁하면서 반미반일의식화의 흐름을 학내에서 꾸준히 만들어 가고 그 투쟁들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제 5,6월은 그 투쟁의 흐름을 더욱 높여내 가시화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남여대협, 남총련출범식, 5.18과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그리고 6.25로 이어지는 큰 계기와 조건속에서 반미반일투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입니다.

2)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준비되어져가고 있는 소모임과 총여조직사업에 내용성을 더욱 가미하여 확대 강화하는 시기로 우리 일꾼 자신들의 단련과 준비가 더없이 중요한 때입니다.

-3,4월 평가를 하면서도 일꾼들의 준비부족을 많은 부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민중이 요구하는 만큼 정세가 요구하는 만큼 일꾼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그리고 준비되었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미투쟁을 그저 관성적으로 구호로 외치면서 정말 분노로 정말 가슴깊은 곳에서 미국반대를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6월은 조직적으로 일꾼들의 단련과 준비정도를 다그쳐나가야하는 시기입니다.

3) 대중사업의 정형을 창출하며 대중속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시기이다.

-실제 큰 대중사업만 하더라도 남여대협 출범식, 전여대협 출범식 그리고 대학마다조선여성제, 오월 여성제가 놓여져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투쟁은 따로 사업은 따로가 아니라 투쟁과 대중사업을 적극 결합시켜나가면서 학우들의 요구도 높은 5,6월 시기에 그 정형을 창출하여 학우들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4) 체반의 사회단체와 공동연대투쟁을 하며 공동의 투쟁체를 건설해 들어가는 시기이다.

-노동절 투쟁으로 힘차게 시작된 5,6월은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의 총력투쟁이 놓여져 있는 시기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는 지금 97년 노동악법 투쟁때의 의지와 결의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의 연대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단결은 곧 승리의 담보입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이 단결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해 나가야하는 절박한 시기가 바로 5,6월입니다.

5) 7,8월 통일투쟁을 준비해 들어가면서 자주교류를 시작하며 학내의 흐름을 만들어가야하는 시기입니다.

-흔히 반팔투쟁으로 비약되어버리는 통일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야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남여대협 차원에서는 자주교류가 아주 대중적으로 되고 있지는 못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치밀하게 계획해 들어가야 합니다. 굳이 자주교류만이 아니라 이북에 대하여 바로 알아갈 수 있는 학내흐름을 만들어가야합니다.

6) 성폭력학칙제개정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우리의 힘으로 투쟁승리를 안아와야하는 시기입니다.

-학교마다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학칙제개정투쟁을 한데로 모아 그 투쟁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모든 총여학생회장들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6월 말에는 기필코 대학별로 그 성과를 안아와야 할 것입니다.

5. 조직사상투쟁과제

1) 여학일꾼들이여 일당백의 실력가가 되자.

그 어느것 보다도 5,6월 시기에 핵심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조직사상투쟁의 과제입니다. 지금 여학일꾼들에게 고질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여 7,8월 그리고 하반기사업과 투쟁을 아

주 대중적으로 여학생운동답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5,6월우리 모두 일당백의 실력가가 되는 일을 핵심사업으로 받아안고 힘차게 전진해봅시다.-나의 삶을 민중의 삶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민중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살아가면서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는 자기노력, 부단한 자기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학습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운동의 사상이나 핵심적인 이론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사상이 없으면 사색도 없고 사색이 없으면 창조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실천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세학습, 개인학습을 기본으로 학습을 생활화합시다.

-대중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 듯이 대중간부는 학우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데 지금에 있어 학우만나기가 선거때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목표를 세우고 학우만나기를 일상적으로 항상 만나내야 할 것 입니다.

-조직에 모든 것을 총화하는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언제나 조직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잘나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못나서 운동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에 조직에 모든 것을 총화하고 조직의 힘에 의거해야 합니다.

② 일꾼들에게 나서는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해결하며 사람간의 문제를 풀어내자.

선거가 끝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근 4개월동안 대학마다 사람간의 문제와 간부들 사이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서 3,4월 사업계획서에도 자기비판 상호비판을 잘할데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대학마다 말끔히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람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운동을 하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미를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 사람간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봅시다.

3) 소모임과 과여부를 더욱 견결히 조직해나가자.

◆ 지금 단대여학생회 소모임 현황과 한계지점

-각 단위마다 소모임성원이 아직 꾸러지지 않은 소수단위를 제외하고 작게는 1~2명, 많게는 7명으로 거의 대부분 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모임으로 구성된 새내기들과 간부들이 아직 친목도모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모임의 정식모임이나 구체적인 활동상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의 활동상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 성과물을 챙기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 과여부장의 조직현황-각 단위마다 2~3명의 과여부장들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모든 과여부장들이 그저 과회장에 의해 주체로만 서있는 상태이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여부장들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여 총여나 단여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활동계획을 잡자!!

-성원들에게 구체적 역할을 주고 일거리를 분공하면서 소속감을 높여주고 여성문제에 대해

조금씩 깊이있게 알아가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식지 소모임이라하면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무슨요일, 몇시에 할것인가,평일에는 점심같이먹기 주말은술한잔하기 등등 소모임 성원들과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 소식지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원고내용은 어떻게 할것인가 누가누가 맡을것인가 등등을 분공하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소식지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결정을 하는것이라도 소모임성원과 함께 하여 소식지가 실제 발행되었을 때 소모임 성원들이 자신의 성과로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자기 단위의 소모임 성격에 맞게 구체적 활동계획을 꼭 수립하여야합니다. 또한 과여부장들을조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업과 투쟁이 제기되었을 때 간부들을 과여부장을 얼마큼 만나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여대협 출범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남여대협 출범식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계획을 짜들어가고 거기에서 과여부장을 어떤방도로 조직할 것인가를 논의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분공해서 만날것인가,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조직할 것인가 등등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잡도록 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자.**

-아직 소모임 성원을 꾸리지 못한 단위나 꾸렸다하더라도 꼭 이중적(?)인 사람마냥 투쟁내용을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투쟁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또는 적대시하는 과여부장들도 있을 때 우리 일꾼들이 그러하곤 합니다. 물론 무조건 아무 이야기없이 집회가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정당성에 자신감을 갖지못하고 새내기들이나 과여부장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야기 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용기를 냅시다. 정의를 수호하는데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법!! 투쟁대열의 선봉에 서는 것처럼 몸싸움할 때 그렇게이악스럽게 싸우는 것처럼 용기를 내 봅시다. 우리 투쟁의 내용, 여학생운동에 관해 조곤조곤 이야기 해주면서 함께 하도록 끈질기게 이악스럽게 쟁겨주도록 합시다.

6. 대중투쟁과제

◆**반미투쟁 - 주한미군철거투쟁**

1)학내외 반미의식화, 반미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냅시다.

●**방도** -모든 대중투쟁을 풀어내는 데 이동총여를 전개하자!!

: 단한주도 빠지지 말고 꼭 진행하자!!

-대중사업 진행에서 꼭 반미투쟁의 내용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방도를 고민하여 봅시다.

2)대중적인 기지촌탐방단을 모집합시다.

●**방도**

-남여대협 전민특위 소모임을 대중적으로 구성합시다(전민특위 계획서에 구체적 제출되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조직화 하는 창조적방도를 고민해봅시다 : 예를 들어 기지촌 탐방단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는 것 등

3)제기와 조건을 살려 투쟁하자.

방도

-5.18투쟁 -출범식투쟁 -남북정상회담에 직면한 투쟁 -6.25투쟁

◆**반일투쟁과 조국통일투쟁**

1)일본군 위안부문제 완전해결투쟁으로 자주교류를 진행합시다.

-자주교류 투쟁계획서 차후 제출드리겠습니다.

2) 옥돌모으기를 대중적으로 진행합니다.

●방도

- 옥돌모으기의 의의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냅니다
- 옥돌모으기 모금운동을 이동총여속에서 녹여내 봅시다.

3) 학생전법법정 평가

- 학내에서 적극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버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큰 의식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 김대중정권에 적극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부분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국제 전법법정을 준비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4) 학내외 반일 의식화, 반일 실천활동

●방도 -대중사업진행에서 다양하게 풀어내는 창조적 방도를 고민해봅시다.

: 단순히 선전거리를 만들어 선전의 내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들속에서 공분을 만들어 내는 방도들로 고민해 봅시다

◆여성노동자투쟁

1) 여성노조와의 연대사업을 꾸준히 전개합니다.

2) 노동계 총파업에 함께 결합합니다.

->추후 여성노조의 활동계획을 알아보고 적극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투쟁

여성농민반의 대중적 모집을 합시다.

- 봄농활의 후속작업을 잘하자. 여름농활 준비.-> 농활 계획서에서 자세히 제출되었습니다.

◆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 -뒤쪽에 제출되었습니다.

7. 핵심사업

◆봄농활 - 지침서는 제출되었고 자료가 곧 제출됩니다.

◆남여대협출범식, 남총련 출범식

<남여대협 출범식 의의와 목표>

- 제국주의에 의한 성문화침탈에 관해 대중적 공분을 모아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 남여대협 투쟁의 내용을 남여대협 기층일꾼의 대중적인 조직화로 출범식을 성사시키자.
-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층 과여부장을 조직화해나가는 기반으로 만든다.
- 기존에 조직해있는 여학생회의 소모임성원들이 함께 하는 출범식으로 만든다.
- =>구체적인 기획은 추후에 제출드리겠습니다.

◆5.18투쟁주간

-명칭 : 미군의 양민학살만행과 5.18광주학살 진짜주범 미국단죄와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5.18투쟁주간

-의의와 목표

- '5.18광주민중항쟁 20주년 민족민주 행사위'를 중심으로 기간의 관제화된 5.18정신을 오늘 날에 되살려 투쟁하는 주간입니다.
- 실질적인 반미투쟁을 기층단위에서부터 활성화하여 반미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투쟁주간입니다.

· 광주민중항쟁 당시 주체적으로 투쟁하였던 여성선배들의 모습을 오늘에 되살려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투쟁하여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투쟁주간입니다.

-대학별로 진행되는 5.18 투쟁에 적극 결합합니다.

-21일 마라톤동안이나 대학별 가장행렬시에 총칼을 들고 투쟁하는 여성, 김밥주는어머니들로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여대협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전여대협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 기획단에서 제출합니다.

◆성폭력 학칙제개정 투쟁 - 뒤쪽에 제출되었습니다.

8. 시기별 흐름

◆5월 1일 ~ 5월 7일 1시기

*전여대협 총회를 마무리지며 봄농활을 대중적으로 성사시키는 시기

*전여대협 총회 평가하기, 여성농민반 주체모임, 봄농활 적극 결합-5월 4~7일 봄농활

◆5월 8일 ~ 5월 21일 2시기

*출범식을 대중적으로 성사시키고 5.18투쟁을 적극화하며 반미투쟁의 파고를 놓여나가는 시기

*남여대협출범식, 남총련 출범식 준비, 대학별 대중사업 진행, 마라톤 대회 준비.*전민특위 소모임 구성하여 활동계획 잡는 시기

*성폭력 학칙제개정 하기위한 공동대책위 구성하는 시기

-5월 10일 반미열사 추모제

-5월 13일 남여대협 출범식, 남총련 출범식 전야제

-5월 14일 남총련 출범식, 국민대회

-5월 15~17일 백만학도 총투표

-5월 18일 한총련 총궐기

-5월 20~21일 한총련 미대사관 진격투쟁

-5월 21일 5.18정신계승을 위한 시민학생 마라톤

◆5월 22일 ~ 5월 28일 3시기

*반미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을 성사시켜야하는 시기

*전여대협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 대중적 준비.

-5월 22일 반미의 날

-5월 26~27일 5.18민중항쟁 20주년 기념 워크샵 및 전국여성단체대표 5.18성지순례

-5월 26~28일 한총련, 전여대협 출범식

◆5월 29일 ~ 6월 10일 4시기

*전여대협 출범식 성과를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사투쟁과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연대투쟁하는 시기

*전여대협 출범식 성사 선전, 노동자 투쟁 의식화, 조직화, 남북정상회담 관련 토론 및 투쟁

-5월 30일 노동자 총파업투쟁

-6월 10일 민중대회

◆6월 11일 ~ 6월 25일 5시기

*상반기를 총화하면서 기지촌탐방을 준비해 들어가고 여름농활을 준비해 들어가는시기..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시기.

*대학별 상반기 총화, 기지촌 탐방 대중적 성사, 여름농활 준비, 7,8월 계획 수립.

- 6월 23일 남여대협 상반기 총화대회
- 6월 말 기지촌 탐방

성폭력 제각각의 상황과 남여대협이
 성폭력 학칙제정
 남여대협 → 남여대협을 위한 투쟁까지

★ 성폭력 학칙 제개정을 위한 남여대협 5,6월 계획

1. 들어가며

학교 별로 상황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학내에서의 성폭력은 이제 예사일이 아닌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단순히 학생과 학생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해 학내를 아니 사회까지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학내 성폭력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 만치 알게 모르게 빈번히 발생하고 은폐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은 확실한 방지기구나 처벌의 기준이 없어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학의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성폭력을방지하고 처벌하기위한 학칙제정과 올바른 학내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발한움직임과 노력들이 각 대학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대학의 노력들을 이제 50만여학우의 대표조직인 남여대협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학내성폭력근절과 학칙 제개정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에도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투쟁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주체를 세워 함께 논의 하는 과정을 거쳐 남여대협 차원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성폭력을 척결하는 투쟁을 해나가하고자 합니다.

2. 방향과 목표

1. 학내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성폭력 학칙제정의공분을 모아내자.
2. 광주 전남 지역의 각 대학들에 성폭력 학칙제정의 요구를 모아 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
3.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 단체와 연대하여 전체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성폭력 학칙제정과 성폭력 근절투쟁을 벌여나간다.
4.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까지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남여대협과 여학생운동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까지 상승시킨다.
5. 각 대학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속에서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여 대중적인 실천 투쟁을 결의한다.
6. 각 대학의 상황과 조건을 잘 파악하기 위해 기층의 실사 작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3. 대학별 선전의식화 방도

-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문제들과 그원인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자.
- 학내 성폭력 설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알려내자.
- 학칙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식화하자.
- 성폭력 신고 뼈뼈나 전화개설등 여학생회가 신고접수를 하는 것을 알리자.

4. 남여대협 선전의식화방도

- 스티커 제작이나 기획 자보 신문 발간
- 설문조사 의견 개진 운동

- 학우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대학우 서명운동 진행

5. 시기별 흐름

*1시기 5월 1일 ~ 7일 <공동대책위 투쟁활동계획서 제출하는 시기>

- 대표자모임 제안
- 학칙제개정의 방향과 내용 잡기

*2시기 5월 8일 ~ 6월 10일 <각 대학 흐름 만들어 가는 시기>

- 공동대책위 구성
- 서명운동, 설문조사사업, 스티커제작배포, 남여대협 차원의 세미나 개최
- 지역여성단체와 연대

*3시기 6월 말 <구체적 투쟁 조직화 하여 성폭력 학칙을 제개정하는 시기>

- 전반적 요구사항으로 대학본부와 면담 꾸준히 진행
- 교육부에 학칙제정요구에 대한 서한 보내기

★ 기지촌 탐방을 대중적으로 성사하기 위한남여대협 전민특위 소모임 활동계획서

1. 들어가며

미국에 의한 노근리 만행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민중들의 분노를 주체할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북에서 전민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저희는 전적으로 받아안고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전민특위의 활동만을 전개하지는 못하는 조직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서 남여대협에서는 여학생운동의 전문적 상황에 맞게 기지촌 탐방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들어가면 미국의 본질을 까발리는 소모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기지촌 탐방을 대중적으로 준비하면서 미국에 대해 본질을 알아가는 연구, 조사사업도 진행하는 소모임이될 것입니다.

2. 의의와 목표

-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전민특위 소모임으로 만들어간다.
- 소모임 성원들의 활동을 높여준다.
- 기지촌 탐방을 대중적으로 만들어간다.
- 남여대협의 연구 조사사업에서 정형을 만들어간다.

↳ 각 캠퍼스 12명 정도. 비정규 반만... ..

3. 소모임 성원을 조직할 때 대해

-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과여부장을 조직해 봅시다.
- 새내기들을 적극 조직하여 반미의식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해 봅시다.
- 대중적으로 모집하여 학우들의 공분을 모아내 봅시다

4. 활동계획 흐름

~5월 21일 소모임 구성원 조직화

~6월 10일 미국 양민학살, 주한미군 범죄 등 미국에 대한 모든 연구조사사업

~6월 25일 대중적 기지촌 탐방 준비

기대, ★ 반미운동 이념적..